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난세의 선비들 패교를 건넜으니

**패교심매도(霸橋尋梅圖)**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조선 4대 문장가 중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 상촌(象村) 신희(申欽; 1566~1628)는 <야언(野言)>에서 매화의 기개(氣概)와 절곡에 대해 읊으면서, 훗날 백범(白凡) 김구(金九)와 퇴계가 좌우명으로 삼다시피 하고 곁한 시를 쓴다.

桐千年老恒藏曲 동천연로항장곡  
梅一生寒不賣香 매일생한불매향  
月到千虧餘本質 월도천휴여본질  
柳經百別又新枝 유경백별우신지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향시 곡절(曲節)을 간직하고.

매화꽃 평생을 추위에 떨며 지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동근달은 천 번을 이즈러져도 근본을 잃지 않으며,

버드나무 백번을 꺾어도 다시 새가지 솟아 오르네.

매화는 어찌해서 향기를 팔지 않을까? 추위를 피해 편안히 지낼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틈을 팔고, 얼굴을 팔고, 생각을 팔고, 가산을 팔고, 무어든 팔아 낼 것인데, 매화는 왜 조출한 향기를 팔아 편히 지낼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강희안(姜希顔)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화목(花木)을 분류하면서, 매화를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봄이 온 것을 알려주고, 불의(不義)에 굴하지 않는 죽절(竹節)과 같은 인물의 정신을 보여주는 표상(表象), 청초하고 고고한 꽃을 피워내는 마들거리(골게 솟아난 매화가지)의 고격(高格)을 보여주는 일등품으로 엄선했다.

매화 한 송이 핀 것을 보면 천하에 봄이 온 것을 안다고 한다. 그러나 매화는 봄이 온 후에 피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봄이 오기 전에 봄을 이끌어 핀다. 눈발 깊은 설야(雪夜)에 겹겹이 쌓인 눈을 뚫고 황홀한 향기와 꽃을 피우며 봄을 앞선다.

중국 섬서성 패수에 있는 다리 하나가 있다. 이름을 패교라고 부르는데, 당나라 때에 장안에서 지방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송별은 대개 이곳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당대의 시인 맹호연(孟浩然)은 이 다리를 지나 설산의 매화를 찾아 떠났다. 후에는 난세의 선비들이 혼탁한 세상을 떠날 때 대개 이 다리를 지나서 세상을 등졌다고 한다.

눈이 썩켜져 쌓인 산기슭 옆에 있는 다리에 당나귀에 걸터앉아, 막대기에 포대를 맨 어린 시자를 뒤따르게 하고, 고개를 꼭 숙인 채 졸고 있는 모습으로 다리를 건너는 이는 느릿느릿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을 떠난다.



패교심매도

당나귀는 혹한에 강하고, 척박한 환경과 적은 음식으로도 살 수 있지만, 걸음은 느린 동물이다. 비록 말과 같은 동물이나 길을 갈 때 느린 동물이 다. 팔팔 뛰는 천리마를 타지 않고, 느린 나귀를 타고 떠나는 선비는 멀리 가지 않고도, 매화를 찾으려는 심사였을까?

패교라는 이 다리 양 옆에는 원래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나라 때 장안에 사는 사람들이 손님이나 벗, 연인을 전송할 때 이곳에서 버들가지를 꺾어 주며 이별의 정을 나눴다고 한다.

중국어의 버들 류(柳)와 머물 류(留)는 발음이 비슷하여, 떠나고자 하여 만류할 수는 없으나 부디 머물러 가지 말라는, 보내는 이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버드나무가지를 꺾어 주었다.

눈 내리는 패교에는 버드나무도 없고, 가는 이를 전송하는 벗들도 없건만, 선비는 말없이 나귀를 몰아 길을 떠난다. 혼탁한 이 난세를 끝내고, 밝고 맑고 향기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 길을 재촉하여 떠나는 그의 마음엔 시상(詩想)을 품고 있는가?

맹호연 선생의 “춘묘(春曉)”를 적으며, 글을 맺고자 한다.

春眠不覺曉 춘면불각효  
處處聞啼鳥 처처문제조  
夜來風雨聲 야래풍우성  
花落知多少 화락지다소

봄꿈은 아직 깨지 못하였는데,  
곳곳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 들린다.  
어젯밤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꽃 떨어져도 아는 이는 적더라.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꽃으로 부터

꺾지 마세요  
본디, 내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지켜봐주세요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네요.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월저도안 선사의 ‘참의 권중경의 시에 차운하여[次權參議重經韻]’

바람과 구름의 오고감

風來雲逐來 (풍래운축래)	바람 불면 구름 쫓아오고
風去雲隨去 (풍거운수거)	바람 가면 구름 따라 가네
雲從風去來 (운종풍거래)	구름이 바람 따라 가고 오면
風息雲何處 (풍식운하처)	바람이 그치면 구름은 어느 곳에 있는고.

이조참의 권중경(1642~1728)이 보낸 시에 도안이 화답한 것이다. 권중경은 도안이 백운 간에서 오고 가는데, 구름은 일정한 거처가 없듯이 내일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묻는다. 단순히 스님의 시공간에서의 거처가 궁금하다는 의미다.

이에 스님은 역시 선사답게 시공과 주객을 초월한 우주 자연의 법리 속에서 답했다. 그 법의 이치란 구름은 다만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옮겨질 뿐 정해진 곳에 의도적으로 머물거나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여기서 구름은 자연을 따르는 도안 스님 자신에 비유된 것이다. 바람·구름·가고 옴의 반복된 시어는 스님의 복잡하지 않은 살림살이와 더불어 청자에 게 법이란 어려운 것도 난해한 것도 아닌 그저 절로 그러함을 맞보게 한다.  
스님은 또 모든 구에서 바람을 주(主)로 구름을 종(從)으로 처리하여 능소(能所)가 성립되고 나눠지는 가 싶게 했다. 그러다가 제3구에서 구름으로 의인화

된 스님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능소는 나누어 지거나 결정돼 있지 않고 인연에 따라 인(因)도 되고 연(緣)도 되는, 인연법에 의해 생주이멸(生住離滅)하는 도리를 슬그머니 보였다.

선시에 있어 자연은 객관적 대상이나 왕상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 그대로가 곧 법의 현현이며 자연은 진여자체이다. 그래서 선적 관조를 통한 깨달음이 가능하고 그 깨달음의 요묘한 경지를 자연 경물의 시화(詩化)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늘에, 대지에, 강가에 떠다니는 가을 색에서 도안 스님이 보인 머무를 것도 집착할 것도 없는 가래(去來)의 실상은 무엇인가? 무주착(無住着)의 도리를 우리도 충분히 체득하고 나만의 몸짓으로 표현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원법 스님(문사·문학박사)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재복 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빛 살림

정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중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흰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팽창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고신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맹기를 썩~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 복부** 뱃살을 빼는 쾌장 운동법, 물욕, 자궁근종, 위장병, 변비, 냉증의 원흉인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법 수록
-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